

각계각층서 수목 기부... 시민과 만드는 영산강 국가정원

나주시 '수목기부제' 연중 운영...방치된 나무 기부하면 이식비 지원 숲 조성 기간 단축·비용 절감 '일석이조'...기증자·단체에 감사패 증정

나주시가 시민의 자발적 수목 기부를 통해 영산강 저류지를 더 푸르고 울창한 '명품 숲'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나주시는 민선 8기 역점사업인 영산강 정원 조성의 밑거름이 될 '수목기부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 제도는 나주시가 지난해 신규 시책으로 발굴했다.

영산강 저류지 정원 조성 시작 단계부터 시민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수목기부제는 개인과 단체, 기관 등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사유지, 하천·도로·사업장 등 개발예정지에 방치되었거나 불필요한 수목을 기부하면 나주시에서 이식 비용을 지원한다.

그간 기증받은 다양한 수목은 영산강 정원이 조성될 저류지에 새롭게 뿌리 내리고 있다.

수목기부제는 숲 조성 기간 단축과 묘목 구입비 절감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묘목은 식재하면 그늘질 정도의 수형과 수세를 확보하기까지 길게는 수십 년이 소요되지만 기부 받은 나무 대부분이 성장한 아름드리 수목이기 때문이다.

나주시는 영산강 정원 조성에 기여한 공로로 대규모 수목 기부자, 기관·업체에 고마운 마음을 담

아 감사패를 증정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제도 시행에 맞춰 각계각층 시민 5명이 개인 소유의 대형 수목을 기증했다.

이어 10월에 전남도 산림자원연구소를 비롯해 예스이 주식회사가 시장 가치 1억원 상당의 수목을 각각 기증해 대규모 수목기증자 제1·2호로 등록돼 감사패를 받았다.

올해 들어선 나주 산포면이 고향인 장인규 흥인농원 대표가 에메랄드 곶드를 비롯해 수목 3400그루(2억9400만원 상당)를 기증해 세 번째 감사패 주인공이 됐다.

영산강 정원 조성은 집중호우와 홍수 등 재해 예방을 위한 치수 사업과 저류지 공간과 특성을 활용한 친수 사업을 동시에 추진한다.

1908㎢(5억7717만평) 규모의 영산강변 저류지 준설을 통해 담수 능력을 기존 700만t에서 약 1000만t으로 늘리고 변형된 저류지에 나무와 꽃 등을 식재해 국가정원급 생태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각계각층에서 자발적으로 기증해준 수목은 훗날 국가정원으로 발돋움할 영산강 정원의 뿌리이자 귀중한 자원이 될 것"이라며 "사시사철 꽃이 피고 녹음이 우거져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관광명소가 될 영산강 국가정원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개인이나 단체, 기관 등에서 기증된 나무들이 영산강 정원이 조성될 강 저류지에 새롭게 뿌리 내리고 있다. (나주시 제공)

나주 교통 약자 위한 저상버스 도입 확대

7000~7002번 5대 신규 투입...연말까지 전기 저상버스 20대 도입



나주시가 노약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향상과 탄소중립 기여를 위해 천연가스(CNG)와 전기를 동력원으로 움직이는 '친환경 저상버스(사진)'를 확대·도입한다.

나주시는 이달부터 천연가스 저상버스 5대를 우선 들여와 7000·7001·7002번 노선에 투입 신규 운행에 들어간다.

운행버스는 47인승으로 '혁신도시(빛가람동)-나주역-나주터미널-동산대학교' 노선을 경유한다.

여기에 연말까지 정정승승수단인 전기 저상버스 20대를 순차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저상버스는 차체가 낮고 승하차 출입구에 계단이 없어서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성을 높이는 대표적인 '배리어프리(무장애)' 운송수단으로 꼽힌다.

앞서 나주시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에 따른 버스를 폐차하거나 교체 시 저상버스를 우선 도입하고 있다.

저상버스 도입으로 버스 탑승 계단을 오르기 힘들었던 교통약자들의 대중교통 이용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저상버스 5대와 전기 저상버스 20대가 도입되면 현재 나주시 저상버스 도입률은 27%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대중교통은 단순 이동 수단이 아닌 시민을 위한 교통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교통약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bson@kwangju.co.kr

장성군, 내년 국비 확보 발빠른 행보

국고지원 사업 발굴 보고회...50개 사업 상황 점검

장성군은 최근 '2025년도 국고지원 건의사업 발굴 보고회'를 열고 국고 사업 50건에 대한 사업비 266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힘쓰기로 했다.

보고회에서는 부서별로 신규·계속사업을 발표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전환사업 분야 발굴 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장성군이 발굴한 내년 국고 사업은 모두 50건, 사업비 2660억원 규모다.

신규 사업으로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369억원) ▲신촌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161억원) ▲매립시설 순환이용 정비(116억원)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97억원) ▲황룡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56억원) 등

이 있다.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사업은 올해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국비 3억3000만원을 확보한 상태다.

장성군은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과 같은 '계속사업' 국비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방침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열악한 지방 재정 상황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전략적 국고 확보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장성의 미래 먹거리 마련을 위한 사업을 꾸준히 발굴해 민생을 안정시키고 진정한 군민 행복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118년만에 폐광' 화순탄광, 시설물 철거 조사

광해 방지·복구 대책 수립 레일·파이프 등 최대한 철거

화순군이 폐광된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 내 레일과 파이프, 케이블 등 시설물을 최대한 철거하기로 했다.

화순군은 최근 광해 방지와 복구대책 수립을 위한 검토 합동조사를 진행하고, 협의의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합동조사에는 화순군과 군의회 폐광대책특별위원회,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주민대표, 용역사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여해 광내시설물을 확인하고 철거 대상 시설물을 점검했다.

관계기관은 이번 합동조사를 통해 철거대상 시설물 종류와 수량을 구분하고 향후 화순탄광 광해 복구대책 용역에 반영할 방침이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당초 이동이 수월한 장비와 유류만 철거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합동조사 과정에서 레일, 파이프, 케이블 등 시설물을 최대한 철거하기로 했다.

화순군도 기술 검토를 거쳐 안전 확보가 가능한



드론으로 촬영한 화순광업소 전경. (화순군 제공)

시설물을 모두 철거토록 요청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미래 세대에 물려줄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 광내시설물의 완전한 철거가 필요하다"며 "안전상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최대한 철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함평군, 숲으로 푸르게

도시숲 조성·등산로 정비 본격화

함평군은 올해 생활환경숲 등 도시숲과 가로숲길을 조성하고 등산로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산림복지 증진을 위한 이들 사업에는 32억원이 투입된다.

대동향교숲 인근에 생활밀착형 숲을 만들고 기산에서 곤봉산에 이르는 28km 길이 테마숲길·가로숲길을 조성한다.

화양근린공원은 내년부터 지방정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설계 용역을 추진한다.

함평군은 유휴지에 나무와 꽃 등을 심어 정원을 가꾸는 등 도시숲을 조성할 방침이다.

기존 등산로를 정비하고 테마숲길을 조성해 지역민이 걷기 좋은 길을 마련한다.

오는 3월에는 수산봉 일원에 황도 맨발 길을 조성한다.



지난해 함평군 대동향 교운리 일원에 조성된 주민참여숲. (함평군 제공)

이상의 함평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군민들에게 휴게공간과 산림복지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내년부터 조성이 시작되는 화양지방정원은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것이며, 매년 축제 때 또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장흥 경로당 운동지도자 전문성 강화

보건소 신체활동지원센터, 신체활동 활성화·인지 교육 등

장흥군이 보건소 신체활동지원센터에서 '경로당 운동지도자 집중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운동지도자 30명이 참석한 이번 교육은 활기찬 노후생활과 신체활동 활성화를 통한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어르신 신체활동, 인지 및 보건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2024년 현재 84개소를 운영중이며, 3월부터는 푸른장흥건강대학 20기를 운영해 새로운 경로당 운동지도자를 양성할 계획이다.

최근 걷기 열풍에 따라 각 마을별 걷기 지도자 리더 양성과 퇴직 운동 지도자 대상으로 '건강체육 은빛교실', '우리동네 건강 교실' 등도 운영하고 있다. 군은 건강을 스스로 겸진해 만성병 질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장흥군 보건소 관계자는 "맞춤형 건강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민들의 건강생활 실천율을 높여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kykim@kwangju.co.kr